

구례군, 배회감지기로 치매어르신 실종 안전망 구축

길 잃는 치매어르신들 배회감지기가 효자 역할 특출
손목형 배회감지기, 실시간 위치 확인·긴급호출 가능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돼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치매환자 중 배회나 실종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와 지문 사전등록서비스를 지원하고,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어르신은 외출 시 휴대폰이나 목걸이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휴대하지 않거나 늦은 밤, 새벽시간에 집을 나가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사전예방이 쉽지 않다. 손목형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 장치(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치매어르신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호출이 가능하다.

치매 어르신이 일정지역을 벗어나면 미리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자동 전송된다. 구례에서도 2020년 1월 배회감지기를 착용한 치매노인이 실종됐지만 위치 확인을 통해 신고 30분 만에 찾아내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노인의 빠른 시간 내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언택트 시대에 치매어르신들

을 비대면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는 120여대의 배회감지기를 구입하여 치매어르신들에게 보급하여 관리하고 있다. 서비스에 참여한 가족들은 “외부에 나가거나 잠시만이라도 집을 비울 때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는데, 배회감지기가 있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또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는 치매어르신들의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외부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이 있다. 발급 시 인식표 80매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 대응 카드가 함께 지급되며, 인식표가 소진된 후에도 무상으로 재발급해주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치매환자들이 실종되면 안전에 크게 위협받고, 행여 있



을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의 고통이 크다”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배회감지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회감지기 보급은 연중 상시 시

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061-780-2026)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동네 여기저기 지붕이 하얗진 이유는?”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 위해 57개소에 쿨루프 조성



곡성군이 취약계층 폭염 피해를 줄이고자 읍면 무더위쉼터 57개소에 쿨루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쿨루프(cool roof) 사업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반사하거나 태양열

을 차단하는 흰색의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내온도를 3~4도까지 낮출 수 있다. 단열효과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따

뜻하게 지낼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억 8천만원이 투입됐다. 환경부 주관 2020년 기후변화대응력 증진 국고보조로 책정된 1억 9천만원에 지방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당초 사업은 지난해 9월 3일 신기2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2020년 말 완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잇따른 기상악화(홍수 및 폭설 등)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올 4월이 돼서야 완료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폭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또한 냉방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열섬 현상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순천시 해룡면마중물보장협의체

주거취약계층 홈클린 사업 추진

건강 위협하던 오래된 쓰레기더미 없애고 방역서비스 시행

순천시 해룡면마중물보장협의체가 최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세대를 위해 주거 홈클린 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룡면 마중물보장협의체 회원 10여명이 모여 집안팎으로 오래도록 쌓여있던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와 환경정리,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 등 어르신에게 꼭 필요했던 서비스를 실시하고 간단한 먹거리가 들어있는 꾸러미도 전달하였다.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은 “몸이 아파서 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집이 깨끗하니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해룡면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홈클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순호 기자



이강북 해룡면장은 “항상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에 앞장서주는 마중물보장협의체에 고마움을 표하며 해룡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순호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